

## 2007년 문화산업 5개 하이라이트

2007-12-4 신화사(新华社)

2007년 여러 산업 중에서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동만, 영화, 관광, 공연상품들이 빛을 발산하면서 아름다운 화면을 형성했다.

### 문화창의산업 등장

2006년 연말부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창의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1회 중국북경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제1회 문화창의산업클러스터발전포럼, 양안도시문화창의산업포럼, 일련의 전시와 포럼들이 문화창의산업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중국 공업설계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2007중국창의산업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 문화창의기업발전이 급속히발전하고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면서 이윤 증장율이 연속 3년 그 해 GDP 증장율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북경 창의산업 증가액은 19%에 달해 제3산업 발전의 평균 증가속도를 초과했다. 중국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 부대시설이 가장 완전한 창의산업 경제구인 절강성 문화창의산업실험구도 항주에 설립되었다. 상해의 창의산업원구는 75개에 달했으며 3천여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최근 2년간 창의산업의 증가액은 16%이상에 달했으며 GDP에 대한 공헌율이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인민의 문화 오락 생활을 풍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추진력으로 되었다. 중국 인민대학 문화창의산업 연구소 소장 김원보(金元浦)는 문화창의산업을 선택한 것은 바로 경제문화화, 문화경제화, 과기문화화와 문화과기화의 고점단 발전의 길을 선택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 영상산업 시장반응 열렬함

22세의 장춘공업대학 4학년생은 28부작 <사병투격(士兵突击)>을 3일간 밤새워 다 보았다고 하면서 작품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했다. 2007년에 방송된 드라마 <사병투격>은 "80년대 후반"관중들의 강열한 공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중국사회연구소 문화연구센터 연구원 마하이토우(马海涛)가 소개한데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산 영화의 년 생산량은 400부에 가까운데 이는 2006년 동기의 300부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하였다. 2007년 영화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선율 영화유형화인데 이전의 주선율영화들이 비교적 단일한데 비해 최근의 주선율 영화는 대부분 시장반응이 좋았다. 더욱이 기쁜것은 이왕 헐레우드영화가 시장을 주도하던데로 부터 2007년에는 중국 국산영화가 중국 본토에서의 점유율이 훨씬 제고된것이다.

이외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국산 드라마의 생산량은 이미 1만부를 돌파하였

으며 발전추세가 좋아 새로운 포인트로 되었다. 2007년 중국은 주선물드라마의 생산 제작이 흥성된 한해였다. <정강산(井冈山)>, <희경전의이야기(喜耕田的故事)> <수풍류인물(数风流人物)>등 우수 작품이 나온 이후로 또 <문화간장><사만양광더쇼우원(洒满阳光的小院)> 등 주선물 역작들이 출시되었다. 그 중에서 혁명역사 소재의 드라마 <흙동학소년(恰同学少年)>은 방송 후 1개월만에 시청율이 계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외 부대소재의 드라마도 스토리가 순수할 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진실하여 많은 관중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켜 또 하나의 시청율 기적을 창조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영상 애니메이션산업의 흥기인데 2007년1월부터 9월까지 국산 tv애니메이션 생산량은 이미 7만분에 달해 다시 역사 동기 최고 기록을 창조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창작 생산이 장기간 불경기했던 상황을 개변시켰다.

### **출판업이 국제시장에서의 매력 발산**

수출방식의 풍부함과 합작영역의 부단한 확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도서무역과 판권수출에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국외 같은 업종에 종사자들과의 합작에 이르기까지, 중국 출판업은 국문을 나가 국제시장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서전시- 제14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는 8월30일에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새 도서 출판, 저작권 수출, 중외작가 대화 등 700여종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활동,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졌다. 중국 출판업계는 미증유의 발전속도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했다. 프랭크폴드 도서전시에서 중국 참석단은 1928개 항목을 수출했으며 총액이 878.24만 달러에 달했다 모스크바 도서전에서 중국과 러시아 출판 단위가 달성한 판권수출, 수입 및 합작의향은 804항에 달했다……

### **개혁이 공연단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예술원단에서 현재 기업 개혁을 완성한 국유원단이 29개이며 그 중에서 성급이 18개, 지방 도시급 극장단체 9개, 현급 극장단체 2개가 있다. 개혁을 통해 공연그룹을 구성했으며 일부 공연그룹은 전체 기업 전환을 완성했다.

사업단위였던 “북경가극무극원”이 개혁과 중국인형예술극장유한책임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2006년12월18일 관중들의 기대속에서 “중국잡기단”이 “중국잡기단유한공사”로 전환되었다. 체제개혁을 거친후 중국잡기공사가 출시한 첫 정품프로그램 “뽀지화권(绚技画卷)”은 북경에서의 첫 공연부터 인기만발이었으며 2007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했는데 4개월에 총 129차 진행했다.

### **관광문화산업 급속 발전**

관광이 점차 사람들 생활 중의 한부분이 되면서 관광과 문화의 융합추세도 점차 뚜렷해졌다. 2007년 “10.1” 황금주 기간에 전국 관광자수가 1.46억명에 달해 2006년

“10.1”황금주보다 9.6% 증가했으며 관광 수익은 642억위엔으로서 2006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10.1”황금주기간, 제1회 북경조양국제관광문화절이 조양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러씨아,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전문팀이 세계 각지의 독특한 관광문화와 민족 풍경을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북경시 관광국이 조사연구한데 으하면 외국의 성숙된 공연예술문화 기능 지역에서 매일 공연 차수가 36차에 달했으며 공연 티켓 수익과 공연으로 인해 창출된 종합 수익 비중은 1:7로서 이는 중국 관광문화 공연의 잠재력이 아주 큼을 보여준다.